

2019 국별 진출전략

호주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3

- 1. 개요 3
 - 가. 시장 전망 3
 - 나. 주요 경제지표 4
-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 가. 호주 총리 교체로 정치리스크 존재 4
 - 나. 안정적 경제성장과 불안정한 환율변동 5
 - 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빛과 그림자 5
 - 라. 표류하는 호주의 에너지 정책 6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8

-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8
- 2. 시장분석 14
 - 가. 시장 특성 14
 - 나. 수출 16
 - 다. 투자 18
 - 라. 프로젝트 20
-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21
 - 가. 교역 21
 - 나. 투자 23
 -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5

III. 진출전략 28

-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8
-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9
- 3. 한-아세안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4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38

첨부 2. 수출유망 서비스 42

첨부 3. 2019년 KOTRA 주요 사업 (잠정) 45

첨부 4.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47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전망

□ 2019년 호주, 3%대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지속할 전망

- 호주는 27년간 경기침체 없는 성장을 지속하며 세계 최장기 기록 유지
 - * 국제통화기금(IMF), 호주 2019년 3.1%의 경제성장률 전망
- 국제 원자재 가격의 점진적 회복에 따른 호주의 자원 공급 기회 확대 및 채산성 증가로 수출입 활성화 기대
 - * 세계 최대 석탄 및 철광석 수출국, 국제 철광석 가격 톤당 69.24달러(2018년 10월)
-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호주달러는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며, 낮은 가계 소득 증가세 및 높은 부채 수준 타개를 위한 저금리 경기 부양 정책 실시
 - * 2018년 8월 미화 대비 호주환율 0.73으로 2011년 대비 30% 이상 하락, 기준금리 26개월 동결(1.5%, 최저치)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구	만 명	2,312	2,346	2,379	2,413	2,439	2,508	2,529
명목GDP	십억 달러	1,509	1,449	1,229	1,259	1,332	1,500	1,581
1인당 명목GDP	달러	46,539	46,881	46,952	47,858	49,449	59,655	61,940
실질성장률	%	2.1	2.8	2.4	2.5	2.6	3.0	3.1
실업률	%	5.9	6.1	5.7	5.8	5.7	5.3	5.2
소비자물가상승률	%	2.7	1.7	1.7	1.5	2.1	2.2	2.4
재정수지(GDP대비)	%	-2.0	-2.1	-1.5	-2.0	-1.8	-3.1	-
총수출	백만 달러	252,645	239,991	187,680	192,504	132,005	146,509	-
(對韓 수출)	"	18,562	17,889	13,290	12,860	8,936	9,750	-
총수입	"	232,142	227,480	200,310	189,306	124,045	131,186	-
(對韓 수입)	"	9,787	10,586	11,158	8,097	11,778	6,103	-
무역수지 balance of trade	백만 달러	20,502	12,511	-12,630	3,198	7,960	15,323	-
경상수지 balance on current account	"	-48,214	-41,786	-58,187	-33,199	-37,883	-13,472	-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12	1.22	1.37	1.38	1.36	1.55	1.53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515	544	534	554	580	605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561	575	296	648	605	680	-

자료원: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Global Trade Atlas, IMF(2017년 8월 기준)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호주는 최대 무역국인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 한편 중국 자본이 정치, 사회, 인프라까지 침투되면서 호주는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규제를 강화
- 2019년 총선이 실시될 예정으로 주요 산업에 대한 정책 변화 전망

가. 호주 총리 교체로 정치리스크 존재

□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을 신임 총리로 선출

- 집권당 지지율 하락과 새로운 에너지·환경 정책 등으로 인한 당내 퇴진 압박으로 2018년 8월 새 총리로 교체
 - 맬컴 턴볼 전 총리는 에너지 공급 안정과 전기세 인하, 탄소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는 국가에너지 보장정책(NEG)의 입법화를 추진하였으나 자유당 내 보수 의원들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교체당하는 수모를 겪음
 - 호주 정부는 대외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탄소 배출 감축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세계 최고 수준인 전기요금의 영향으로 실질적으로는 석탄 산업 중심의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함
- 최근 10년간 다섯 번의 총리 교체로 인해 정치리스크 상승
 - 2007년 이후 지난 10년간 역대 총리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 증가
 - 호주의 양대 정당인 자유당과 노동당에서 총리직을 겸하는 당대표를 축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
 - 당내 권력투쟁으로 주요 개혁 정책이 입안되지 못하는 등 정치혼란이 지속
 - 2019년 5~11월로 예정된 총선으로 정계 지각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주요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

[최근 10년간 역대 호주 총리]

재임기간	이름	소속 정당	총리 교체 이유
2007. 12~2010. 6	케빈 러드	노동당	지지율 하락으로 당내 불만
2010. 6~2013. 6	줄리아 길러드	노동당	총선 전 당내 불만
2013. 6~2013. 9	케빈 러드	노동당	총선 패배로 인해 사퇴
2013. 9~2015. 9	토니 애벗	자유당	지지율 하락으로 당내 불만
2015. 9~2018. 8	맬컴 턴볼	자유당	에너지 정책 관련 당내 불만

자료원: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나. 안정적 경제성장과 불안정한 환율변동

□ 세계 최장기 성장을 보유국인 호주

- 27년 연속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
 - 호주는 1991년 6월 경기불황이 종료된 시점부터 2018년 6월까지 27년 동안 경기침체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며 세계 최장의 성장세를 기록
 - 호주의 장기 플러스 성장 비결은 고용 증진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건전한 재정상태, 금융 및 자본 시장 규제 완화 등의 혜택과 중국의 경기활성화에 따른 원자재 수요 급증도 호주 경제에 플러스 영향을 미침
 -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2/4분기 성장률이 1/4분기 대비 0.9% 상승, 2017년 동기 대비 3.4%(연율)를 기록함. IMF와 OECD는 2019년 호주 경제가 3%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
- 호주환율 하락세와 미-중 무역분쟁
 - 호주 금융기관 전문가들은 호주 환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과 호주 금리, 중국 경제호황을 지목함. 불안정한 원자재 가격 및 지속되는 글로벌 경기둔화로 호주달러 가치는 2019년에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특히 호주와 경제관계가 밀접한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는 호주 환율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철광석 가격이 14% 정도 떨어졌으며 수출에도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

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빛과 그림자

□ 높은 對중국 의존도가 미치는 호주 경제의 리스크

- 국제 원자재 가격변화 요인과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호주에 미치는 영향
 - 호주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석탄, 철광석 수출국이며 국제 원자재 시세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음

[호주의 對중국 교역]

(단위: 백만 달러)

항목	2015	2016	2017	2018(2/4분기)
수출액	56,513.93	60,870.78	76,386.13	42,373.85
수입액	46,234.52	44,161.82	49,082.89	25,668.08
무역수지	+10,279.41	+16,708.96	+27,303.24	+16,705.77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호주의 최대 무역 파트너, 중국
 - 중국은 호주의 최대 수출입 교역국인 동시에 호주 1, 2위 수출품목인 철광석, 석탄 등 원자재의 최대 수입국
 - 2015년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호주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며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2017년 초부터 다시 회복세
 - 2015년 12월 호주와 중국은 협상 착수 10년 만에 FTA에 공식 서명하여 호주 수출상품 85%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점차 95%까지 확대

□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 호주 정부,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
 - 호주 외국인투자심의회(FIRB)에 따르면,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구입에 대한 규제 강화와 추가 세금 부과로 인해 중국인의 對호주 투자가 급감
 - 2018년 2월부터 농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시 공개적이고 투명한 매매절차 조건을 도입함과 동시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최소 30일 이상 매매 시도 후 외국인과 거래하는 규제를 신설
 -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시 호주 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던 뉴사우스웨일즈주, 빅토리아주, 퀸즐랜드주에 대한 투자액이 감소
- 경제·정치·사회·인프라 전반에 스며든 중국 자본 확대 우려
 - 호주의 정당·로비 단체가 외국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외국개입금지(anti-foreign interference legislation)가 2018년 6월 입법 통과하여 2019년 발효 예정이나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공지되지 않은 상황
 - 그 배경으로 중국 정부와 관련 있는 기관과 개인이 호주 정치권에 약 670만 달러를 제공했다는 보도와 연관된 것임
 -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식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로비 행위를 구속할 수 있는 로비 스트법도 마련하는 중

라. 표류하는 호주의 에너지 정책

□ 국가에너지보장정책 포기

- 호주 정부, 국가에너지보장정책(NEG) 입안을 추진했으나 당내 반대로 무산
 - 국가에너지보장정책은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 보장, 전기세 인하, 탄소배출 감소를 주요 목표로 제시
 - 석탄 발전에 크게 의존하는 호주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차지하였으며, 이에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한 후 다각도의 기후변화 정책 시행 중

-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호주에서는 과거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에너지정책 입안이 지금까지 일곱 차례나 실패함. 현 정부의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
- 신재생에너지 공급은 증가 추세
 - 호주 전체 생산 전력의 17%가 신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되고 있으며 2020년 목표인 20%를 미리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전체 주택의 21%에 해당하는 167만 개의 태양광 판이 호주 가정에 설치됨.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붕형 솔라 패널 보급률임
 - 태양광,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의존도가 45%로 가장 높은 남호주 지역은 2017년 2월 폭염으로 인해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는 등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
 -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저장능력을 증대시키고자 에너지 스토리지 분야에 높은 투자를 시행 중. 이에 확실한 전력보장과 전기세 절약이 가능한 태양광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 기대

[2017년 호주 주별 전력발전량]

(단위: GWh)

주(state)	전체 발전량	화력 발전량	신재생에너지발전량	신재생에너지 적용률(%)
테즈마니아	10,361	1,208	9,153	88
남호주	13,243	7,252	5,991	45
빅토리아	49,610	41,622	7,988	16
서호주	19,095	16,371	2,724	14
뉴사우스웨일즈	67,932	60,601	7,331	11
퀸즐랜드	64,840	59,856	4,984	8
총계	225,082	186,910	38,172	17

자료원: Clean Energy Australia 2018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호주는 세계 14위 경제 강국으로 2%대의 안정적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 2차 산업 기반은 취약하나 금융, 관광, 교육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
- 지속적인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개발로 실업률이 크게 회복, 추가적 고용창출이 기대

가. 정치 환경

□ 주요 정치 선거결과

- 자유당 스콧 모리슨 전 재무장관, 2018년 8월 24일 2차 당권 경쟁에서 45대 40으로 피터 더튼 전 내무장관을 누르고 30대 신임 호주연방총리로 선출
- 1차 당권 경쟁에 참가한 줄리 비숍 외교장관은 지지율 부족으로 결선투표 진출에 실패, 2차 당권 경쟁에 불참한 말콤 턴불 전 호주 총리는 8월 31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 은퇴
- 다만 당내 파동으로 현 집권당인 자유당의 지지율이 10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 호주 주요 언론사의 설문조사 결과 자유당 지지율이 44%로 하락, 야당인 노동당은 56%로 상승

□ 집권당 구조

- 자유당은 호주 전체 상원의원 76명 중 31개 의석과 150명의 하원의원 중 75개 의석을 보유, 스콧 모리슨 호주연방총리가 당 대표를 맡고 있음
- 자유당은 원내당과 원외당으로 구분, 원내당은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어 정당 정책 및 전략, 의회활동 등을 결정, 원외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지지자들로 당의 강령, 선거 입후보자 사전 선정 및 관리 등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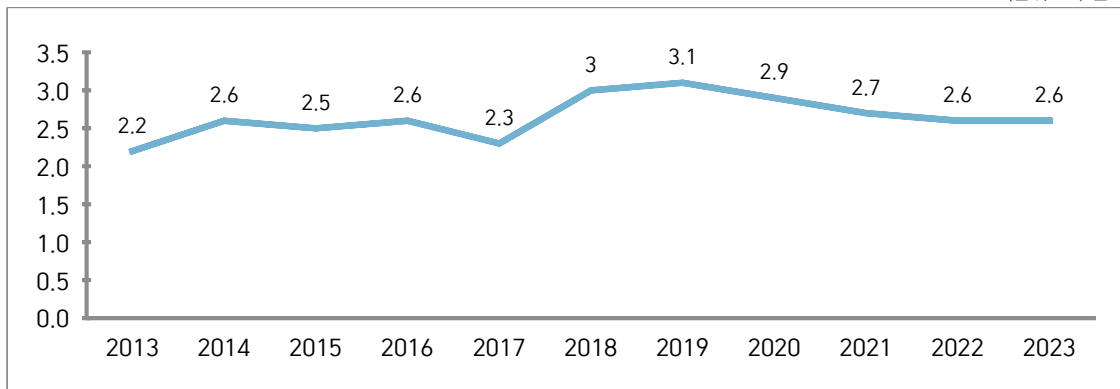
나. 경제 환경

□ 경제성장

- IMF는 2018년 호주 경제성장률을 3%로 예측, 호주준비은행 및 내셔널호주은행 역시 각각 3.0%와 2.8%의 유사한 성장률을 전망
 - 한편, OECD는 현재 진행 및 계획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 부문의 정부지원 및 공공투자가 호주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중국의 경제침체와 균형조정이 호주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높은 가계 부채와 주택시장 침체 또한 위험요소로 작용 가능

[호주의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연도)



자료원: IMF

[호주 GDP 및 성장률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명목 GDP	15,158	14,550	12,329	12,649	13,795	15,003	15,819
1인당 GDP	64,994	61,462	51,344	51,873	55,707	59,655	61,940
GDP 성장률	2.2	2.6	2.5	2.6	2.3	3.0	3.1

자료원: IMF(2018년 4월 기준)

□ 주요 경제동향

[호주 주요 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환율(1AU\$= US\$)	연평균	0.97	0.90	0.75	0.74	0.77	0.76	0.75
기준금리	연말	2.5	2.5	2.0	1.5	1.5	1.5	1.5
소비자물가상승률	연평균	2.5	2.5	1.5	1.3	2	2.2	2.4
실업률	-	5.7	6.1	6.1	5.7	5.6	5.3	5.2

자료원: 호주중앙은행(RBA), 내셔널호주은행(National Australia Bank), IMF(2018년 4월 기준)

- (환율) 지난 10년 사이 호주달러 가치 변동 심화
 - 2012년 연평균 1.04미국달러 수준을 유지하던 호주달러는 2015년 0.70 선이 붕괴, 2018년 8월 현재 0.73 수준에 그침
 - 호주 내 금융 및 무역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 및 국내 경기불안 여파로 호주달러가 향후 미국달러 대비 0.60 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의견을 보임
- (금리)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2016년 사상 최저수준(1.5%)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한 이후, 2018년 8월 현재까지 1.5%의 기준 금리를 유지
- (물가상승률) 호주 물가상승률은 2018년 8월 기준으로 2.1%를 기록, 이는 호주준비은행 예상치인 2.0~3.0%에 겨우 근접한 수준임
 - 물가상승률은 임금인상률 회복으로 가계소비가 호전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2.5% 수준까지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실업률) 호주달러 가치 하락에 따른 관광업 발달, 호주 이민자 수 증가로 인한 교육서비스 증대, 가속화되는 고령화로 의료분야 발달 등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실업률 회복

□ 교역동향

- 호주의 교역규모는 지난 5년간 지속 감소하다 2017년 회복세로 전환, 당해 교역액은 4,251억 미국달러로 전년 대비 18.4% 증가
 -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2017년 對호주 4위 교역국을 차지
- 수출은 2016년까지 최근 4년간 지속 하락세에 있었으나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회복으로 2017년에 전년 대비 20% 가량 증가
- 수입은 2012년을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다만, 2017년 수입은 전년 대비 17% 가량 증가한 2,214억 미국달러를 기록
 - 호주의 對한 수입은 LNG 플랜트 및 관련 선박 유입으로 전년 대비 99% 상승한 161억 미국달러를 기록

[호주의 교역동향]

(단위: 억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	2,526	2,400	1,877	1,925	2,311
수입	2,321	2,281	2,006	1,893	2,214
무역수지	205	119	-129	32	97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외국인 투자진출 동향

- 호주의 외국인 투자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8,491억 호주달러(직접투자) 유치, 이는 전년 대비 520억 호주달러가 증가한 수치
- (국가별) 2017년 호주의 국가별 투자유치 누계액은 미국이 1,899억 호주달러로 가장 많으며 일본, 영국, 네덜란드, 중국 등이 뒤를 이음
- (업종별) 호주 최대 투자유치 산업은 3차 산업으로 총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의 48%가량을 차지함. 광산업 37.5%, 제조업 11.5%, 부동산 10.7%로 뒤를 이음

[2015~2017년 국가별 호주 직접투자]

(단위: 백만 호주달러, %)

순위	국명	2015		2016		2017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1	미국	182,831	24.8	192,977	24.2	189,919	22.4
2	일본	86,639	11.8	91,043	11.4	92,520	10.9
3	영국	64,693	8.8	74,681	9.4	83,174	9.8
4	네덜란드	47,846	6.5	51,811	6.5	53,502	6.3
5	중국	35,724	4.9	38,717	4.9	40,688	4.8
6	캐나다	24,812	3.4	28,431	3.6	35,420	4.2
7	싱가포르	29,162	4.0	23,421	2.9	26,286	3.1
8	홍콩	12,553	1.7	13,366	1.7	25,972	3.1
9	버뮤다	23,294	3.2	22,542	2.8	25,455	3.0
10	독일	16,999	2.3	19,542	2.5	23,822	2.8
17	한국	3,178	0.4	5,023	0.6	5,220	0.6
-	기타	211,475	28.3	240,563	29.5	252,340	29.1
	합계	736,028	100	797,094	100	849,098	100

주: 통계 발표주기 연 1회, 5월 중

자료원: 호주 통계청(2018. 5)

다. 산업 환경

□ 호주 산업동향 전반

- 전 세계 광물자원 가격회복으로 당분간 관련 제품 수출입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자재 가격호조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
- 2013년 이후 지속된 건설경기 호황이 2017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 시드니 및 멜버른 등 도심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거품이 빠지며 가격하락 및 주거용 아파트 공실률 증가
- 교육, 관광, 금융, 의료 등 서비스 산업은 꾸준히 성장. 특히 호주환율 약세로 외국인 방문객이 매해 증가

[2018년 호주 산업별 GDP 비중]

(단위: %)

구분	농림수산	광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GDP 비중	3.0	6.3	6.3	7.9	76.5

자료원: 호주무역투자진흥처(2018년 2월 기준)

□ 주요 산업별 동향

- (농축산업) 호주는 세계 최대 소고기 생산국으로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높은 수요와 함께 생산량 지속 증가
 - 2018년 6월 기준, 호주의 양고기(Mutton) 생산은 5만 4,209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가량 증가. 소고기 및 돼지고기 생산도 각각 56만 7,284톤과 10만 5,860톤으로 2017년 6월 대비 6.4%, 4.4%씩 증가
- (광산업) 2017년 기준으로 호주 GDP의 9.7%를 차지하는 광산업은 향후 5년간 성장세를 지속, 2021년에는 GDP의 16.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
 - 호주는 OECD 국가 3위의 광산물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석탄 및 철광석 수출국
 - 호주의 주요 매장 광물은 금, 철광석, 납, 니켈 등이며 이를 포함한 9개 광물 매장량은 2016년 12월 기준 세계 1위를 차지
- (건설업) 호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및 주택 과잉공급으로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하락 추세. 이로 인한 건설 투자 수요 및 신축 주택 감소
- (의료산업) 2022~2023년까지 70세 이상 인구가 호주 전체의 12% 이상을 차지할 전망. 고령자 증가와 함께 만성질환 치료제, 외과 및 치과 관련 의료장비 시장 활성화 기대
-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7년 16.9%에서 2020년 2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법안이 통과
- (인프라 프로젝트) 호주연방정부는 향후 10년간 국가중점 인프라 건설에 750억 호주달러를 투자할 계획. 이 중 245억 호주달러가 신규 인프라 사업에 편성될 예정임
 -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난 완화 및 안정성 확보, 운송 수용량 증가, 고용창출 기대

[2018년 호주 인프라 최우선사업 목록]

사업명	주요 내용
M4 고속도로 확장	고속도로 진출입 개선/지능형 교통시스템 도입/화물차 우회차선용 진입차선(35km), 차로증설(4.3km)
웨스트커넥스 도심고속화도로	M5 확장 및 9.2km 터널공사, 신설 및 2개 간선도로와 연결 * 삼성물산 참여 컨소시엄 1~2, 3단계 공사 수주
시드니 메트로	북서부-도심(북부) 15.5km 철도복선터널 공사(1단계), 도심(북부)-남서부 17.1km 철도신설/13.4km 구간 개량(2단계)
서부 시드니 신공항	3.7km 단일 활주로 및 배후시설, 제2활주로, 배후시설 구축
M80 순환도로확장	총 38km중 3개 간선도로 연결구간 14km 확장
브리즈번 메트로	21km 버스차로를 따라 고속환승시스템 도입

자료원: Infrastructure Australia

라. 정책·규제 환경

□ 정책환경: 2020년까지 전체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20% 달성 목표

-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가 완료되는 2020년까지는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5~6GW 용량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관계자 및 의무 당사자인 대형 전력 소매사들, 목표 달성에 낙관적 태도
 - 태양광발전의 경우 여타 에너지원에 비해 건설공기가 획기적으로 줄어 목표달성에 유리한 만큼 태양광 관련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규제환경: 비닐봉지 무료제공 금지 통한 환경규제 강화

- 2018년 7월 1일부터 호주에서 2개 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비닐봉지 규제 시행
 - 현재 해당 규제를 도입하지 않은 빅토리아주는 일회용 경량 비닐봉지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소한다는 계획을 밝힌 반면, 뉴사우스웨일즈주는 구체적 규제 계획을 표명하지 않은 상황
 - 다만,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일부 대형 유통업체는 환경 살리기 활동에 자발적 참여를 위해 2018년 6월 20일부 일회용 비닐봉지 무료제공을 중단

□ 무역협정 체결현황

-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에도 호주는 수입규제 품목을 감소시켜 보호무역주의와는 다른 노선을 보이고 있음
 - 이는 호주의 제조업 경쟁력이 날로 위축되면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제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전체 교역장벽을 낮춤으로써 자국 강점의 서비스 부문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 호주의 무역협정 체결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18년 8월 기준 총 10개 자유무역협정 발효, 3개 체결, 9개 협상 중이며, 2018년 2개 협정 체결, 1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함
 - (TPP-11)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2018년 3월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에 의해 체결
 - (호주-페루) 2017년 개시된 페루-호주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2018년 2월 12일 체결. 동 자유무역협정 발효 시, 두 국가 간 관세의 99% 이상을 5년 이내 철폐
 - (호주-EU) 호주의 두 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인 EU와 호주가 2018년 6월 18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 해당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호주는 상품 및 서비스, 교육, 취업, 투자 시장 교역의 활성화 기대

[호주 FTA 발효 현황]

시기	협정명
1983년 1월	호주-뉴질랜드 공동시장화 협정
2003년 7월 28일	싱가포르-호주 자유무역협정
2005년 1월 1일	호주-미국 자유무역협정
2005년 1월 1일	태국-호주 자유무역협정
2009년 3월 6일	호주-칠레 자유무역협정
2010년 1월 1일	아세안-호주 자유무역협정
2013년 1월 1일	말레이시아-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지역
2014년 12월 12일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
2015년 1월 15일	일본-호주 경제 동반자 협정
2015년 12월 20일	중국-호주 자유무역협정

자료원: 호주 외무성

2. 시장 분석

- 한국-호주 상호보완적 무역 파트너 관계 구축
- 호주의 천연자원 및 원자재와 한국의 공산품 및 제조품을 교역하는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
- 호주의 산업경쟁력은 1차 광물자원과 3차 서비스업(금융, 관광, 교육 등)이 27년 연속 경기침체 없는 지속 성장을 견인
- 한편 고비용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현지 3대 완성차 제조공장이 전면 철수하면서 호주의 2차 산업은 쇠퇴

가. 시장 특성

□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편

- 제조업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부동산, 관광, 교육, 금융 등 서비스 분야 육성 활발히 추진
 - 서비스업이 전체 GDP의 76.5%를 차지하며 호주 정부는 Tourism 2020, Idea Boom, Australian International Education 2025와 같은 신정책을 통해 교육, 관광, 의료, R&D 등 서비스업 발전 노력
 - * Tourism 2020: 관광산업의 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전략으로 2020년까지 1,150억 호주달러 규모의 관광객 소비 지출 달성이 목표(2018년 3월 기준 1,074억 호주달러까지 달성)
 - * Idea Boom: 호주 대표산업인 광산업 대신 과학, 테크놀로지 분야의 국가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대학교 등에 투자, 관련 신생기업에 세금을 20% 면제. 2015년부터 4년간 정부 예산 11억 호주달러 지원
 - * Australian International Education 2025(AIE 2025): 유학생 유치 및 국제 교육에 투자하여 쇠퇴하는 제조업 대신 서비스 시장 위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로드맵 제시
 - 호주달러 약세와 더불어 유학생, 관광객 증가, 의료 서비스 수출증가 등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
 - * 호주 방문객 수 910만 명(2018년 7월),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

[호주의 산업별 GDP 비중]

(단위: %)

구 분	농림수산	광업	건설	제조업	서비스업
GDP 비중	3.0	6.3	7.9	6.3	76.5

자료원: 호주무역투자진흥처, Australia Benchmark Report 2018

□ 세계적인 광물 자원 보유국이자 에너지 강국

- 주요 자원인 철광석, 석탄, LNG 수출 증가
 - 광산붐이 사실상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주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
 - 자원 부문의 신규 투자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간의 투자계획 추진과정에서 건설업, 인프라 개발 등 연계 산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
-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달
 - 특히 태양광, 풍력 산업이 발전하였으며, 태양광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 시장 성장세
 -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스토리지 분야 투자 및 프로젝트 진행 활발

□ 온라인 비즈니스의 급성장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 기회

- 현지 인터넷 환경 발달 및 온라인 시장 성장
 - 5G 무선통신 및 광통신망(National Broadband Network, NBN) 보급 증가를 통한 인터넷 속도 향상으로 온라인 비즈니스 발달
 - 주말에도 오후 5~6시면 상점의 문을 닫는 호주 소매시장의 특성상 온라인쇼핑 매장은 소비자에게 시간적 제약이 없는 동시에 구매의 편리함을 제공하여 인기
- 온라인 쇼핑 규모 지속 상승
 - 2013년 기준 108억 호주달러였던 인터넷 쇼핑 규모가 2018년 226억 호주달러로 두 배 가까이 성장
 - 주요 판매 품목은 의류 및 신발, 액세서리, 식품, 주류, 생활용품, 컴퓨터, 가전제품 순이며 전체의 62.8% 차지
 - 인터넷 쇼핑의 소비자층은 25~55세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

[호주 온라인 쇼핑시장 규모]

(단위: 억 호주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108.1	121.4	138.9	173.1	185.5	205.3	226
증가율	20.9	12.3	14.4	24.6	7.2	10.7	9.8

자료원: IBIS World

□ 한국-호주 상호보완적인 관계, 전략적 동반자

- 한국은 호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공산품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구축
- 한국은 호주로부터 전략 자원을 비롯한 철강, 자동차, 에너지 등 주요 수출품의 안정적인 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호주에 자동차와 첨단 전자제품, 가공품을 수출하는 이상적인 교역 파트너로 관계 구축

나. 수출

□ 호주의 교역동향

- 최근 교역규모 및 주요 교역대상국
- 호주의 2018년 7월 기준 수출은 1,468억 달러로 2017년 동기 대비 11% 상승, 수입은 1,312억 달러로 2017년 동기 대비 5.8% 증가하여 전체 교역액 2,780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7년 동기 대비 8.5% 상승함
- 한국과 호주의 전체 교역액은 2018년 7월 기준 158억 달러로 2017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여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4위를 기록
- 한국은 호주의 상위 10위 수입대상국 중 중국, 일본, 미국, 독일, 태국에 밀려 2017년 3위에서 2018년에는 6위로 하락

[호주 교역규모 및 주요 교역대상국]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7
순위	전체	4852.7 (-4.3)	4680.7 (-3.5)	3882.0 (-17.1)	3818.1 (-1.7)	4525.0 (18.5)	2780.1 (8.5)
1	중국	1283.8	1212.2	1027.5	1050.3	1254.7	794.8
2	일본	636.7	584.8	445.6	410.8	499.2	336.2
3	미국	326.7	339.9	324.7	303.6	317.8	190.3
4	한국	287.7	290.1	246.6	209.6	316.8	158.2
5	인도	115.4	107.2	113.4	116.3	159.8	99.6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호주의 교역동향]

(단위: 억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7
수출	2,526	2,400	1,877	1,925	2,311	1,468
수입	2,323	2,281	2,005	1,893	2,214	1,312
무역수지	203	119	-128	32	97	147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한국-호주 무역동향

- 한국의 2018년 7월 기준 對호주 수출은 59.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 수입은 112.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8% 하락하였으며, 전체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6.1% 하락함

[한국의 對호주 교역동향]

(단위: 억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7
수출	95.6 (3.4%)	102.8 (7.5%)	108.3 (5.3%)	75.0 (-30.7%)	198.6 (164.8%)	59.1 (-62.0%)
수입	207.8 (-9.6%)	204.1 (-1.8%)	164.3 (-19.5%)	151.7 (-7.7%)	191.5 (26.2%)	112.5 (-0.8%)
교역 규모	303.4 (-5.9%)	306.9 (1.2%)	272.6 (-11.2%)	226.7 (-16.8%)	390.1 (72.1%)	171.6 (-36.1%)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Global Trade Atlas

- 대다수의 상위 10대 수출품목의 수출실적은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화학원료와 건설광산기계 수출액이 크게 상승
- 반면 자동차, 축전지 수출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이외 기타 제품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임

[한국의 對호주 수출 상위 10대 품목]

(단위: 억 달러, %)

품목명	2017		2018. 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98.6	164.8	67.5	-58.5
석유제품	42.0	52.1	31.1	22.5
자동차	23.7	18.4	14.9	-1.8
합성수지	0.14	25.8	0.11	25.5
정밀화학원료	0.14	44.3	0.11	48.9
건설광산기계	0.12	25.3	0.11	55.7
철강판	0.12	55.8	0.09	21.1
건전지 및 축전지	0.13	38.5	0.09	-3.2
알루미늄	0.11	45.6	0.07	15.8
동제품	0.10	33.4	0.07	29.2
전력용기기	0.08	150.0	0.07	72.9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중국, 일본과의 주요 교역품목 및 경쟁동향

- 2018년 7월 기준 호주의 최대 무역국은 중국으로 주로 거래되는 품목은 TV 및 전자제품, 가구 및 침구류, 장난감 등이며, 2위 교역국 일본과는 미네랄, 자동차 등 수송차량, 기계류 등 거래
- 호주-중국, 호주-일본과의 무역이 전체 교역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미국이 6.85%로 3위, 한국은 5.71%로 4위 교역국임

- 한국-호주 비관세 진입장벽은 대부분 해소, 여전히 까다로운 인증제도
 - 2014년 12월 발효된 한-호 자유무역협정(KAFTA)에 따라 한국-호주 수출품의 84%, 호주-한국 수출품의 99.8%가 관세 폐지
 - 호주에서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품질 인증 제도가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유럽의 CE나 미국의 UL 등 선진국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시간 및 비용 절약
 - * 對호주 진출 시 인증이 필요한 주요 분야 : 식품, 전자재, 전자제품, 의료기기 등

□ 호주 수출 성공사례

- 차량용 트레일러 업체 H사는 한국에서 디자인, 제작, 조립, 용접 등 모든 생산을 하는 제조기업으로 내수시장에 주력하느라 해외에 진출할 생각을 하지 못했으나 2017년 KOTRA 신규 수출 기업화 업체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출에 도전
 - 캠핑용 트레일러 시장이 발달한 호주에 진출하기로 결심한 후, 사업 파트너 연결지원을 통해 현지 바이어들과 연락을 추진. 이 중 멜버른에 위치한 I사가 계획 중인 오토바이 장착용 트레일러 개발을 제안
 - 호주 트레일러 관련 규정인 ADR(Australian Design Rules)과 원하는 디자인으로 맞춤형 생산이 가능한지 의뢰를 받고, 국내 내수시장에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바이어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출전문위원과 무역관의 지원하에 2018년 초 호주 첫 수출을 달성

□ 호주 수출 실패사례

- 한국의 식품업체 A사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국에 이미 상당한 수출 성과를 내고 있던 업체로 호주에도 소량 수출을 하고 있었으나 대형 식품유통사에 납품을 하고자 무역사절단에 참가
 - A사의 주력 제품은 한국 커피믹스로, 이미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높은 수출량을 보였기에 제품에 대한 자신감도 컸으며 커피 소비량이 매우 높은 나라인 호주가 시장성이 매우 클 것이라 판단
 - 반면, 신선한 우유에 갓 볶은 커피콩을 갈아 만든 커피를 선호하는 현지인들에게 프림(밀크파우더)이 첨가된 커피는 인공적으로 인식되며 인스턴트커피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낮아 슈퍼마켓 체인에 공급하는 현지 벤더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함

다. 투자

□ 호주 투자진출 동향

- 한국의 對호주 투자는 과거 자원, 에너지, 건설, 상업용 부동산 등에 집중 되었으나 최근에는 소비재, 바이오, 유통 등 호주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형태로 다변화되는 추세

[2018년 한국의 對호주 투자사례]

업체명	투자내용	진출시기
차병원그룹	난임클리닉 City Fertility Centre 80% 지분인수	2018년 1월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브랜드 매장 직접투자 진출	2018년 6월
롯데면세점	JR Duty Free 면세점 100% 인수	2018년 8월
엘앤케이바이오메드	현지 판매 연구법인 설립	2018년 9월

자료원: 멜버른 무역관 정리

- 2017년 중국의 對호주 투자는 103억 달러로 2016년 대비 11% 이상 감소했으나 특히 국가자본과 연계된 국영기업 등의 투자 감소폭이 큰 것으로 알려짐
 - 주요 진출분야는 리튬 등의 자원, 부동산, 농축산물, 풍력 등의 대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이며 최근 헬스케어 분야 투자 증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
- 일본은 2017년 누적 기준 호주 2위 투자국으로 금융, 부동산, IT, 건설, 자원, 물류,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투자를 진행
 - 호주의 바이오, 의료, 자원 분야 신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추세

[일본의 對호주 투자사례]

업체명	투자내용	진출시기
Takeda Pharmaceutical	모나쉬대학교 의약품 공동개발	2014년
Teijin	The Healthy Grain사 공동 슈퍼푸드 공동개발	2017년
Fujifilm	재생의약 전문개발사 Cynata 투자	2018년
Kawasaki	빅토리아주 갈탄 수소액화 기술연구	2018년

자료원: 멜버른 무역관 정리

□ 진입장벽

- 투명한 제도 운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특히 불리한 규제는 없으나 건설, 환경 등의 프로젝트 추진 시 현지의 까다로운 노무, 환경 관련 법규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
 - 한국과 상이한 거래업체 간 업무, 파트너십, 하도급계약 문화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음
- 호주 외국인투자심의기관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는 적대적 외국인 투자 및 호주 전략자산 매각에 따른 외국 정부기관의 영향력 등을 관리, 심사하며 주로 중국의 국영 기업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음

□ 호주 투자진출 성공사례

- 한국의 L사는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임플란트를 수출하였으며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직접 수출

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현지에 투자법인을 설립

- 직접 마케팅으로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한편 현지 시장환경에 맞춘 신속한 제품 개발을 진행하여 시장 안착에 성공
- 더불어 현지 대학 및 연구소와 공동 R&D를 진행하여 신기술 확보를 위한 기지로 활용

□ 호주 투자진출 실패사례

- 국내업체 C사는 현지 디저트 프랜차이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진출하였으며 중국, 아시아계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예상 매출을 달성하였으나 유럽계 이민자의 인종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예상을 크게 밑도는 매출로 어려움을 겪음
- 현지 식문화, 디자인 브랜딩 등의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가맹점 확장에 실패하여 철수

라. 프로젝트

□ 대규모 교통인프라 프로젝트

〈멜버른 동부 North East Link 고속도로 프로젝트〉

- 멜버른 동부 North East Link 고속도로 프로젝트
- 총사업비 : 호주 160억 달러
- 사업기간 : 2020~2027년
- 발주처 : North East Link Authority
- 홈페이지 : <https://northeastlink.vic.gov.au>
- 프로젝트 주요 내용
 - 총연장 26km 왕복 6차선 PPP 고속도로 프로젝트로 주거지를 관통하는 지하 5km 구간이 핵심 난구간
 - 현지 대형건설사 John Holland, Land Lease, CPP 3개사 중 1개사와 반드시 컨소시엄 구성 필요
 - 2018년 9월 LOI 접수개시, 2019년 행정승인 완료, 2020년 착공계획
 - 수주실패 컨소시엄에 최대 2,500만 달러 비용지원 계획
- 컨소시엄 가점부여 항목
 - 5km 주거지역 관통 터널시공 능력
 - 해외 EPC, FI 파트너링(비용 경쟁력 위해 해외업체와 파트너링 독려 목적)
 - Urban Design, 시공 이노베이션
- 담당자 및 연락처
 - Jenny Klaster (Executive service coordinator)
 - Ph: +61 3 9655 6036

[North East Link 계획도]



자료원: <https://northeastlink.vic.gov.au>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협업체

가. 교역

□ 한-호 교역동향

- 2018년 1~7월 한국의 對호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61.9% 감소, 수입 0.7% 감소

[한-호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1~7
수출	7,501	19,862	5,910(▽61.9)
수입	15,176	19,160	11,254(▽0.70)
무역수지	▽7,675	701	▽5,344

주: 괄호 안은 증감률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 2017년 LNG 해양플랜트 및 인도선박 수출로 수출증가세가 높았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세로 전환. 승용차, 경유, 제트유 및 등유 등 일부 석유제품 수출 증가, 휘발유, 축전지 등은 감소
 - 승용차(0.4% 증가), 경유(14.9% 증가), 제트유 및 등유(95.7% 증가)

- (수입) 유연탄, 철광 등 국내 수요 하락으로 수입 감소. 천연가스는 호주 3대 대규모 LNG 사업이 2018년 중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시작함에 따라 생산 및 공급량 증가, 한국의 對호주 수입 증가에 영향
- 유연탄(3.7% 감소), 천연가스(19.9% 증가), 철광(8.5% 감소)

[한-호 무역통계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증감률 %)

수출품목	2016	2018.1~7	증감률	수입품목	2016	2018.1~7	증감률
승용차	2,229	1,274	0.4	유연탄	5,361	3,045	-3.7
경유	1,982	1,172	14.9	천연가스	2,912	2,091	19.9
제트유 및 등유	1,103	1,028	95.7	철광	3,585	1,962	-8.5
휘발유	969	372	-36.4	가축육류	1,165	764	6.5
합성수지	146	103	27.3	알루미늄괴	738	384	-15.5
건설중장비	126	99	62.6	아연광	422	375	62.3
수산화나트륨	124	96	44.2	기타금속광물	417	344	35.0
축전기	140	86	-5.3	원유	638	289	-12.7
알루미늄판	111	69	18.4	당류	794	261	-46.9
기타석유	88	69	52.7	곡류	307	216	20.7
소계	7,018	4,368		소계	16,339	9,731	
총계	19,862	5,910	-61.9	총계	19,160	11,254	-0.7

자료원: 한국무역협회(품목코드는 MTI 4단위 기준)

□ 한국기업의 수출 성공·실패 사례

- (성공사례) S사, 한-호 FTA 체결로 가격경쟁력 확보, 지사화 사업 통한 수출증진 성공
 - S사는 연질캡슐 성형 및 포장설비 제공업체로 한-호 FTA 체결 전인 2014년까지는 높은 관세로 인한 낮은 가격경쟁력으로 호주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한-호 FTA 체결로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에 현지(호주) 업체들의 문의가 늘어남
 - S사는 본격적 시장 확장을 위해 호주 내 법인 설립을 계획하였으며, 보다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가입함
 - 시드니 무역관과의 협업을 통해 S사는 2016년 11월 성공적으로 현지법인을 설립, 꾸준한 신규 바이어 발굴을 통해 거래선이 증가, 2017년에는 20여개의 호주 주요 제약회사들과 거래를 통해 對호주 수출규모가 크게 증가함
- (실패사례) 제품에 대한 바이어의 관심은 높았으나 최소주문 수량요건의 차이로 거래 불발
 - 국내기업 B사는 KOTRA 사업 파트너 연결지원 서비스를 통해 바이어로부터 화장품 수입에 대한 문의를 받음
 - 바이어는 크리스마스 프로모션용으로 일부 고객들에게 배포할 마스크팩 제품의 구매를 희망하였으며, 무엇보다 B사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에 높은 관심을 보임

- 하지만 바이어는 첫 거래이며, 프로모션용으로 사용될 것을 감안하여 많은 물량의 구매가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하였고, 국내업체는 최소수량을 맞추지 못할 경우 높은 FOB 가격이 책정될 수 있음을 전달함
- 바이어는 이에 동의하였으나 국내기업이 제시한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높아 제품을 구매할 수 없었으며, 이후 몇 차례 조율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양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거래가 불발됨

나. 투자

□ 호주 투자유치 현황

- 지난 5년간 호주 외국인 투자유치 꾸준히 증가
 - 호주의 2017년 투자유치 금액 8,491억 호주달러(직접투자), 전년 대비 520억 호주달러 증가
 - 가장 최근 발표된(2018년 5월) 호주 통계청의 국가별 직접 투자유치 금액은 미국이 1,899억 호주달러로 가장 많으며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이 뒤를 이음. 단, 호주 통계청은 국가별 투자유치액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음

[2015~2017년 국가별 호주 직접투자(누적치)]

(단위: 백만 호주달러, %)

순위	국명	2015		2016		2017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1	미국	182,831	24.8	192,977	24.2	189,919	22.4
2	일본	86,639	11.8	91,043	11.4	92,520	10.9
3	영국	64,693	8.8	74,681	9.4	83,174	9.8
4	네덜란드	47,846	6.5	51,811	6.5	53,502	6.3
5	중국	35,724	4.9	38,717	4.9	40,688	4.8
6	캐나다	24,812	3.4	28,431	3.6	35,420	4.2
7	싱가포르	29,162	4.0	23,421	2.9	26,286	3.1
8	홍콩	12,553	1.7	13,366	1.7	25,972	3.1
9	버뮤다	23,294	3.2	22,542	2.8	25,455	3.0
10	독일	16,999	2.3	19,542	2.5	23,822	2.8
17	한국	3,178	0.4	5,023	0.6	5,220	0.6
-	기타	211,475	28.3	240,563	29.5	252,340	29.1
	합계	736,028	100	797,094	100	849,098	100

주: 통계 발표주기 연 1회, 5월 중

자료원: 호주 통계청(2018. 5)

- 호주 투자진출 현황
 - 재료 수입 후 가공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에 호주는 미래 국내경제 성장에 중요한 투자처로 꼽힐 가능성이 높음

- 지속 성장을 위한 호주의 정책 중 하나는 자본조달로 정부는 외국인 투자제한을 완화해 옴. 이에 외환규제도 거의 없는 편으로 투자유치에 유리

○ 호주 정부의 지원과 투자유망 분야

- 호주연방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에 관한 세금 감면혜택 프로그램 운영 중
- 호주연방정부 소속 투자유치기관 Austrade는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 바이오, 에너지, 환경, 금융, 정보통신, 첨단 제조업, 나노기술, 광업, 서비스 산업을 유망투자 분야로 선정

□ 한국의 對호주 투자

- 2018년 한국의 對호주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24건(8,600만 달러) 기록
 - 한국의 對호주 투자는 광업, 제조, 전기가스 및 도소매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
 - 투자금액 기준 광업 1,500만 달러(17.4%), 제조업 5백만 달러(5.8%), 전기 및 가스 4백만 달러(4.7%), 도소매업 4백만 달러(4.7%) 순
- 한국의 對호주 투자 누계(1980~2018년)는 신고 기준으로 1,912건, 200억 달러
 - 업종별로는 광업 149억 달러(74.5%), 부동산 및 임대업 22억 달러(11%), 제조업 8억 달러(4%), 운수업 6억 달러(3%) 순

[한국의 對호주 투자추이]

(단위: 건, 개, 백만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 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06	83	47	189	146
2007	120	53	155	143
2008	142	57	654	580
2009	130	36	1,252	266
2010	115	39	767	1,171
2011	93	31	4,162	1,382
2012	84	27	4,408	2,237
2013	84	24	1,716	2,682
2014	71	15	844	1,673
2015	77	13	679	896
2016	118	38	1,595	1,299
2017	93	23	533	680
2018	24	4	86	122
누계(1980~2018)	1,912	724	19,950	14,169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對호주 한국 진출기업은 자원 개발 및 현재 판매법인 중심

우리나라 주요 진출기업

- 자원개발기업 : 한국광물자원공사, 중부발전, 고려아연, 한전, 경동, SK네트웍스, 포스코 등
- 종합상사 : 포스코대우, 현대종합상사, 삼성물산, GS글로벌, LG상사, 롯데상사 등
- 공기업 : KOTRA,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가스공사
- 현지 판매법인 :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대우전자, 농심, 대한전선,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현대글로비스, LS전선, 현대로템, 인오션, 넥센타이어, GS건설 등
- 서비스업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신한은행, 판토스 등

□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성공·실패 사례

- (성공사례) 높은 진입장벽을 뚫고 호주 시장에 진출한 뉴트리바이오텍
 -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인 뉴트리바이오텍의 호주 멜버른 공장은 호주 식품의약청에 해당하는 TGA로부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획득, 호주 1, 2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Blackmores, Swisse와 제품 개발 및 생산 진행
 - 빅토리아주는 특히 의료기술, 생명공학, 제약제품 개발과 제조에 이상적인 지역이며 뉴트리바이오텍의 투자는 멜버른이 위치한 빅토리아주에 있어서 대형 투자 중 하나로 꼽힘
- (실패사례) S사 광산 프로젝트 투자
 - S사는 호주 R지역에 2010년부터 이 프로젝트의 인프라 건설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했고 2013년에 공사를 수주하며 화제가 됨
 -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이후 ‘저가 수주’ 논란이 불거졌고 2017년에만 R지역에서 발생한 잠재손실이 8,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며 공사기간 4년여 동안 5,000억 원 가까운 손실이 남
 - 리스크 관리 실패 및 불공정계약, 하청업체와의 분쟁 및 현장에서의 안전문제 등 전반적 부분에서 손실을 본 투자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호주 비자제도 개편에 따른 이민 억제 정치 견제

- 호주 정부는 외국인들이 자국 내에서 취업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비자(457비자)의 취득 조건을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전면 개편(2018년 상반기 발효)
 - 이로써 유학생이나 교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파견되는 직원들에 대한 비자 취득조건 또한 까다로워짐
 - 호주로 유입되는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및 유학생 수는 다시 줄고 있는 반면, 유학생 중 졸업 후 귀국하는 학생 수는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호주 유입 한국인 유학생 수 및 증감률]



자료원: 호주무역투자진흥공사

- 우리 기업들은 호주 이민법(Migration Act) 개정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한-호 정부 간에도 상대국 내 자국민의 원활한 경제활동 추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함

□ 한-호 산업 간 강점 강화 전략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박차

- 자원 강국인 호주와 기술 강국인 한국은 산업에 있어 상호 보완 관계
 - 호주는 한국의 해외 광물자원 분야 최대 투자국으로 누적투자액 169.2억 달러 중 28.1%인 47.5억 달러 차지
 - * 해외 광물투자(2016년 누계, 달러) : 호주 47.5억, 캐나다 22억, 마다가스카르 17.6억, 인도네시아 16.9억, 브라질 12억 등
 - 현재 31개 사업이 진행 중(생산 18개, 개발 4개, 탐사 6개, 휴광 3개)으로 진출사업 대부분이 정상 생산되고 있어 성공적 진출사례
 - 일부 광물 프로젝트의 경우 주·연방정부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인·허가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속 대응을 통한 조기 승인 노력 중

□ 한-호 상호인증협약(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으로 비관세 진입장벽의 해소

- 양국 간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2017년 7월 체결

* 상호인정약정(AEO MRA) : 자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AEO)에 수출입 통관 절차상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AEO MRA 체결국 현황]



자료원: 관세청

- 호주는 전문직 서비스 선진시장으로, 우리 측은 시장진출 외에도 기술도입, 제도 선진화 등 효과를 감안하여 적극 추진 중
 - * 협정문상 5개 분야 : (우리 측 관심)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 보건의료, (호주 측 관심) 회계
- 제2차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 계기 기술사 MRA 활용 통계 공유, 수의, 보건의료 분야 협회 간 논의 촉진방안 협의 중

III 진출전략

- 수입 의존적인 시장구조, 변화하는 對호주 수출 트렌드에 주목
- 호주의 4대 무역 파트너로 떠오른 한국,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시장 적극 공략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호주 시장 SWOT 분석]

강 점(Strength) •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27년 연속 플러스 성장 • FTA 5년차를 맞아 대부분의 주요 수출 품목에서 관세 철폐 • 투명한 현지 유통구조 및 수출입 관련 제도	약 점(Weakness) • 세계 최고수준의 최저임금으로 인한 높은 인건비 • 지리적 고립에 따른 높은 물류·유통 비용 • 제조업 기반 취약, 서비스업·1차 산업 위주
기 회(Opportunity) • 호주의 4대 무역 파트너로 떠오른 한국 • 가전, 자동차 등 호주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한국 브랜드 • K-pop, K-beauty 등 아시안 커뮤니티 중심으로 시작된 한류 확산	위 험(Threat) • 호주달러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 • 호주 최대무역국인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중국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받음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FTA 체결 효과와 한류를 최대한 활용한 틈새시장 공략 • 최근 변화하는 對호주 수출 트렌드 주목, 소비재·IT·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 진출 확대	호주 유망산업 집중 공략
ST 전략 (강점 활용)	• 중국산 제품 대비 K-brand 품질로 승부 • 한국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ICT, 핀테크 등 분야 진출 확대	K-brand 파워를 통한 인지도 제고
WO 전략 (기회 포착)	• 호주 4대 무역파트너로서 입지 강화 • 호주의 취약한 제조업 기반 주목, 상하간 산업 강점 강화 전략	FTA 체결효과 극대화 전략
WT 전략 (위험 대응)	• 취약한 제조업 기반 및 높은 물류비용에 주목, 다양한 온라인 채널 활용전략 필요 • 한국산의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으로 접근	온라인 상거래를 통한 수출 확대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19년 진출전략	
분야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아시아 영향력 증대	- 아시아 인구 증가에 따라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률 상승 - 화장품 등 한국산 소비재 진출 확대 - 농업 분야 투자진출 필요
호주 제조업의 쇠퇴	- 현지의 높은 생산단가로 인해 제조업 쇠퇴 - 호주의 주요 수입품인 자동차, 정유, 통신장비, 전자제품 분야에서 한국산 브랜드 인기 - 방산제품의 수출 확대
서비스산업 강세	- 서비스업이 전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건설, 의료, 교육, 관광, 금융 등 서비스산업 발달 - 기술력을 기반으로 직접 진출이나 M&A 투자기회 - 바이오 제약 및 인프라 건설 투자기회 확대
5G 무선통신 인프라 구축	2019년 주요 도시에 5G 서비스 상용화 계획 - 국내 통신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콘텐츠 개발 기업 진출 유망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	- 인터넷 환경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활성화 - 온라인 및 대형유통망 쇼핑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소비 활발
핀테크 산업 발달	-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호주 정부의 적극 지원 - 향후 결제, 대출 분야에 국내기업 진출기회. 금융시장 협력 확대
글로벌 테스트베드	소비재, 방산, 바이오제약, 인프라 건설, 금융, 농업 등 전략분야 마케팅으로 투자진출 확대

가. 한국식품 수출 확대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호주 식음료 서비스 산업 규모는 2017년 기준 190억 달러로 지속 성장하는 시장
 - * 호주 매출 및 고용 창출 부분에서 호주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산업으로 종사자 수가 200만 명에 이룸
- 호주 소비자들은 음식의 다양성, 친환경, 가치를 중요시하며 다국적 식품문화가 확산
 - *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원산지과 성분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
- 식음료 소비 트렌드는 건강을 위해 음식을 까다롭게 선택하지만 동시에 편리함을 추구
 - * 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건강하고 신선한 음식을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 지속 개발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소비자들이 건강식, 프리미엄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유기농, 할랄 등 관련 인증이 있는 식품을 선호하는 추세
 - 호주 식품시장에서 유기농은 전체 식품군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유기농 인증을 받은 한국산 김스낵, 호주 현지 생산 김치 출시
 -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프리미엄 푸드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인증 시스템에 따라 제조된 식품군 확대
- 가정식 위주의 호주 식문화와 편리함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결합된 밀 키트(Meal Kits) 배달 서비스 인기
 - 밀키트란 레시피에 따라 필요한 손질이 끝난 식재료와 양념이 세트로 구성된 제품으로 호주 대형 슈퍼마켓을 위협할 정도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 호주는 외식비가 비싸 가정에서 요리해 먹는 문화가 일반적이며 본인이 직접 신선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을 선호함
 - 호주 식품 제조사에서는 각 재료를 따로 구입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키트를 출시
 - 소비자는 희망하는 밀키트 서비스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마음에 드는 레시피를 선택해 주문 가능하며, 서비스 업체는 지역별 배송 날짜에 맞추어 상품을 배송
 - 대부분의 밀키트 서비스는 기본 구성, 채식 구성, 패밀리 구성으로 나뉘어 판매. 세부 구성은 서비스 업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본 구성은 1~2인이 3~5일 동안 식사가 가능한 신선재료와 레시피를 포함하며, 채식 구성은 2~6인이 2~3일 동안 식사가 가능한 육류·생선류 제외 식재료 및 레시피를 포함, 패밀리 구성은 4~6인 가정이 2~5일 동안 식사 가능한 각종 식재료와 레시피로 구성됨

[호주의 다양한 밀키트 서비스]



자료원: Hello Fresh, Pepper Leaf, Dinnerly, Marley Spoon 홈페이지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한국 스타일은 살리고 건강, 청정으로 이미지 메이킹 필요
 - 한국음식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전통적인 맛은 살리고 현지 시장에 맞는 패키징과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
 - 한국음식이 생소한 현지인들을 위해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통해 한국음식 문화와 유래, 장점 등을 어필할 필요가 있음
 - 채소, 곡류를 기본으로 한 한식의 건강함을 강조하고 중국, 일본 음식과 완전히 차별화될 수 있도록 청정 먹거리 이미지를 강조
- 한국식품의 구매 파워가 높은 아시안 식품점을 공략
 - 아시안 식품점 수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 수와 비슷한 약 800여개에 이르며 취급하는 한국식품 수가 훨씬 많음
 - 한국식품을 비롯하여 아시안 식품을 전문적으로 수입, 유통하는 교포기업, 벤더, 수입 도매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진출하는 것이 유리

나. 5G 상용화에 따른 관련 산업 활성화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무선통신 시장규모는 2018년 230억 호주달러로 향후 5년간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 호주는 4G 무선통신 서비스를 2011년에 처음으로 개시하였으며 전국 광통신망(National Broadband Network) 사업은 2020년 완공 예정
- 무선통신의 경우 4G 기술을 통해 기존보다 빠른 데이터 전송과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
 - *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무선통신망에 대한 현지 수요와 사용 밀도도 상승
- 호주는 2019년에 주요 도시를 시작으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후 2020년까지 전체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
 - * 5G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호주는 5G 전용 주파수 경매를 적극 추진하며 2019년부터 5G 서비스 상용화 계획
 - 호주 최대 통신기업 텔스트라의 경우 인텔 및 에릭슨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5G 시범 장비를 차량에도 장착 가능한 컴퓨터 사이즈로 개발 완료
 - 2018년 4월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개최된 커먼웰스 게임을 통해 5G 서비스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침
 - 호주 정부는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ZTE사의 5G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 보안 및 안전성 우려로 도입 금지 결정을 내림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5G 서비스 상용화에 따라 바이오메디컬, 스마트 모빌리티, 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과 접목 되어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
 - 호주의 경우 5G 무선통신 시대를 앞두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기 위한 관련 장비 및 서비스가 부재 하는 상황
 - 통신사 및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서비스 구현 과 활용을 위해 기술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호주는 자국 내 개발 중인 5G 기술이 ITU(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정부지원 활발
 - 한국을 비롯하여 해외기업들의 기술격차가 크지 않아 국제표준 채택과 기술 상용화가 향후 5G 시장을 좌우할 전망
 - 국내기업에서도 세계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함

다. 핀테크 시장의 발달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호주 내 2014년 100개 미만이었던 핀테크 기업은 2017년 기준 580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고용인원만 1만 명에 달함
 - * 호주는 글로벌 투자를 받은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의 수가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음
- 호주의 핀테크 적용률은 2017년 기준 37%로 중국, 인도, 영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으며 지난 2년간 주요 국가 중 영국 다음으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 호주 핀테크 산업혁명의 가장 큰 원동력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한 호주 소비자들의 행동변화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확산임
- 핀테크 산업 증진을 위한 호주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 및 규제 완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 호주 정부는 호주를 세계 핀테크 리더로 발전시키고자 올해 국가 차원에서 시드니와 멜버른에 핀테크 허브를 개설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호주 정부는 더 많은 해외 핀테크 기업들이 호주를 매력적인 시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핀테크 에코시스템을 지속 발전시키는 데 중점
 - 호주 핀테크 산업에서 가장 기업 수가 많은 분야는 결제, 대출, 자산관리로 특히 결제시스템의 경우 주요 은행들이 스타트업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
 - 호주는 2017년 1월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를 돈과 똑같이 취급하기 시작해 부가가치세 (GST) 과세 대상이 아니며 관련 산업이 점차 활성화됨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호주 소비자들은 비현금 결제수단 이용률이 높고 핀테크 적응력이 빨라 결제시스템과 대출 분야 기회
 - 현지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로열티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페이팔과 같은 글로벌 결제시스템의 영향력이 크지 않아 잠재력이 높은 시장
 - 호주 주요 은행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대출서비스가 발달된 한국기업에 기회
- 호주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기업에서는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
 - 해외 스타트업에서도 공유사무실 이용이 가능하며 호주 정부에서는 핀테크 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기업 유치에 매우 적극적
 - 호주 기업과의 파트너십, 공동투자 등을 통해 진출을 시도해 볼 수 있음

3. 한-호주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가. 스마트시티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호주 정부는 52개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2,850만 호주달러를 편당함
 - * 이는 지방정부, 대학, 산학 연계 펀딩으로 지원되며 이 중 40%가 지방 지역도시에 위치함
- 글로벌 네트워크 기업 역시 호주의 스마트시티 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 화웨이의 Intelligent operation centre, Cisco와 KPMG Australia의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 노키아 등이 기술 참여 진행 중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UNSW)과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협력 협약 체결
 - 스마트도시, 도시재생, 주거복지 분야 프로젝트를 공동 발굴, 공동연구 시 인적자원을 교류하면서 상호 협력 예정
- 호주는 NBN사의 통신망 활용, 교통, 농업, 헬스케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전개 중
 - 호주의 스마트팜 사업은 뉴잉글랜드대학의 주도로 시범사업이 Kirby라는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학술기관 전문 ISP인 aarnet이 NBN에서 망을 제공받아 UNE의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지원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스마트시티 필수설비 주목
 - 스마트시티 핵심 기기 및 기술은 산업인터넷(산업용 사물인터넷), 스마트시스템(에너지, 인프라, 빌딩 등), Sensor/CCTV/Rfid, Big-data Analytics 등
 -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을 통한 진출이 용이할 것

나. 신재생 에너지(태양열·풍력·파력 등) 관련 기술기자재 수요 증가 전망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17년도는 호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기록적인 증가를 달성한 해
 - * 2017년도는 특히 풍력과 수력 발전이 전체 발전에서 각 5.7%를 차지해 사상 최대를 기록
 - * 남호주는 풍력 발전의 지속 증가 및 화력 발전용량 감소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45% 달성
-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RET) 수정안이 통과된 2015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급격히 증가
- 급격한 전기료 인상이 저장에너지 및 태양광에너지 등 일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는 데에 기여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전기료 인상에 호주 태양열 발전 급증
 - 지난 5년 동안 일부 주에서는 전기료가 두 배 이상 인상됐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자원 마련 및 낮은 송배전망으로 인한 높은 전력손실이 주원인
 - 높은 전기료가 가정 및 상업용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PV 발전량 증가로 이어짐
 - 자가 수요를 위해 에너지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ESS 설치도 급격하게 증가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태양전지판 수요 증가
 -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용 태양전지판 설치가 최근 5년 사이 최대치 기록
 - 국내기업은 현지 시장 분석, 정부 규제, 유통구조 등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전시회 참가를 통해 현지 트렌드 및 바이어와 네트워킹도 필요
 -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태양전지판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가격경쟁력 확보도 중요

다. 정부 주도 인프라 건설, 전자재 수요 증가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18~2019 연방예산안으로 호주 정부는 호주 내 모든 주(州)와 영토 전반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약 29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245억 달러 예산 규모의 지출을 계획
- 호주의 10년 인프라 프로젝트 플랜
 - * 2018~2019년에서 2027~2028년까지 수송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한 750억 달러의 일부로 신규 주요 운송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에 245억 달러를 지원
- 건설현장에 필요한 중장비와 도구 공급
 - * 이미 현지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뛰어난 국내 중장비 품질을 유지해 안정적인 수출량을 유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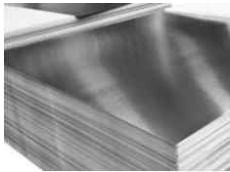
- 호주 연방·주정부 대형 건설 및 인프라 사업 추진
 - 2017년 호주 정부가 건설(교통·철도·교량·항만) 인프라 확대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며 국내기업의 현지 건설시장 진출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멜버른 철도 확장 및 내륙철도 건설 등 대형 건설사업이 구체적인 검토 및 진행 중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산업 건설시장, 직접 진출 아닌 현지 건설사를 통한 진출 유망
 - 현지 건설사가 장악하는 주요 건설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직접 진출보다는 호주 주요 현지 건설사와 접촉을 통해 파트너 개념으로 진입하는 것이 효율적임
 - 호주 건설시장의 까다로운 안전 규격 및 표준 규격에 맞춘 품질 문제, 보수적인 시장 성격 등으로 인해 직접 영업은 쉽지 않으며 한국에는 없는 호주만의 계약 방식에 대한 사전 이해가 수반되어야 함
- 사회기반시설 공공재, 전자재 시장 성장에 따른 수요 공략
 - 호주는 콘크리트 펌프를 포함한 각종 중장비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수요 또한 2년 사이에 두 배 이상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국내제품이 전체 수입비중의 55%를 차지하고 있음

수출유망 품목

	위생지	HS Code	4818.2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86.3	대한수입액('17/US\$백만)	8.6
	선정사유	- 호주의 위생지 수입규모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한국산 제품은 2016년 대비 15.6% 증가, 호주 전체 수입의 10% 점유			
	시장동향	- 2017년 시장규모는 14억 9,340만 호주달러로 지난 5년간 2% 증가 - 호주 위생지 시장에서 화장지 제품이 전체의 63.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티슈, 손수건, 페이셜티슈, 키친타올 등이 뒤를 이음			
	경쟁동향	- 호주 위생지 생산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기업(브랜드)은 김벌리 클락(크리넥스) 37.4%, 아세로 케어(소버트) 26.3%, 에이비씨 티슈(퀵톤) 18.6% 순			
	위생지	HS Code	4818.2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86.3	대한수입액('17/US\$백만)	8.6
	선정사유	- 호주의 위생지 수입규모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한국산 제품은 2016년 대비 15.6% 증가, 호주 전체 수입의 10% 점유			
	시장동향	- 2017년 시장규모는 14억 9,340만 호주달러로 지난 5년간 2% 증가 - 호주 위생지 시장에서 화장지 제품이 전체의 63.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티슈, 손수건, 페이셜티슈, 키친타올 등이 뒤를 이음			
	경쟁동향	- 호주 위생지 생산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기업(브랜드)은 김벌리 클락(크리넥스) 37.4%, 아세로 케어(소버트) 26.3%, 에이비씨 티슈(퀵톤) 18.6% 순			
	인스턴트라면	HS Code	1902.3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117.9	대한수입액('17/US\$백만)	15.4
	선정사유	- 호주의 인스턴트라면 수입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6년 대비 39%가량 증가 -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지속 증가하여 2017년 1,534만 달러 달성. 이는 2016년 대비 163%가량 증가한 수치			
	시장동향	- 2017년 시장규모는 3억 5,510만 호주달러로 지난 5년간 4%가량 성장 - 세계 인스턴트라면협회에 따르면 2017년 호주의 인스턴트라면 소비량은 3억 9천만 개가량으로 전 세계 19위 차지. 이는 세계 전체 수요의 0.4%에 그치는 수준이나 지난 5년간 호주의 인스턴트라면 소비량은 빠른 속도로 증가			
	경쟁동향	- 호주 인스턴트라면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브랜드는 판타스틱 누들 4.6%, 매기 6.2%, 인도미 4.5% 순이며, 한국제품의 경우 농심 라면이 2% 점유			
	음료	HS Code	2202.1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206.7	대한수입액('17/US\$백만)	1.8
	선정사유	- 호주 음료 수입 지난 3년간 지속 증가, 2016년 대비 10%가량 증가 -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전체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나 2016년 대비 4.6%가량 증가해 173만 달러 규모의 제품을 수입			
	시장동향	- 2017년 시장규모는 39억 3,580만 호주달러로 지난 5년간 1.7%가량 성장 -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면서 음료 역시 무설탕, 저칼로리 제품을 선호. 특히 웰빙을 모토로 한 차(Tea) 및 건강음료 수요 증가			
	경쟁동향	- 호주 음료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은 코카콜라 39.8%, 아사히 20.1%, 트르블루 5% 순			
	음료	HS Code	2202.1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206.7	대한수입액('17/US\$백만)	1.8
	선정사유	- 호주 음료 수입 지난 3년간 지속 증가, 2016년 대비 10%가량 증가 -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전체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나 2016년 대비 4.6%가량 증가해 173만 달러 규모의 제품을 수입			
	시장동향	- 2017년 시장규모는 39억 3,580만 호주달러로 지난 5년간 1.7%가량 성장 -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면서 음료 역시 무설탕, 저칼로리 제품을 선호. 특히 웰빙을 모토로 한 차(Tea) 및 건강음료 수요 증가			
	경쟁동향	- 호주 음료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은 코카콜라 39.8%, 아사히 20.1%, 트르블루 5% 순			
	음료	HS Code	2202.1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206.7	대한수입액('17/US\$백만)	1.8
	선정사유	- 호주 음료 수입 지난 3년간 지속 증가, 2016년 대비 10%가량 증가 -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전체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나 2016년 대비 4.6%가량 증가해 173만 달러 규모의 제품을 수입			
	시장동향	- 2017년 시장규모는 39억 3,580만 호주달러로 지난 5년간 1.7%가량 성장 -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면서 음료 역시 무설탕, 저칼로리 제품을 선호. 특히 웰빙을 모토로 한 차(Tea) 및 건강음료 수요 증가			
	경쟁동향	- 호주 음료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은 코카콜라 39.8%, 아사히 20.1%, 트르블루 5% 순			
	음료	HS Code	2202.1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206.7	대한수입액('17/US\$백만)	1.8
	선정사유	- 호주 음료 수입 지난 3년간 지속 증가, 2016년 대비 10%가량 증가 -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전체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나 2016년 대비 4.6%가량 증가해 173만 달러 규모의 제품을 수입			
	시장동향	- 2017년 시장규모는 39억 3,580만 호주달러로 지난 5년간 1.7%가량 성장 -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면서 음료 역시 무설탕, 저칼로리 제품을 선호. 특히 웰빙을 모토로 한 차(Tea) 및 건강음료 수요 증가			
	경쟁동향	- 호주 음료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은 코카콜라 39.8%, 아사히 20.1%, 트르블루 5% 순			
	음료	HS Code	2202.1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206.7	대한수입액('17/US\$백만)	1.8
	선정사유	- 호주 음료 수입 지난 3년간 지속 증가, 2016년 대비 10%가량 증가 -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전체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나 2016년 대비 4.6%가량 증가해 173만 달러 규모의 제품을 수입			
	시장동향	- 2017년 시장규모는 39억 3,580만 호주달러로 지난 5년간 1.7%가량 성장 -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면서 음료 역시 무설탕, 저칼로리 제품을 선호. 특히 웰빙을 모토로 한 차(Tea) 및 건강음료 수요 증가			
	경쟁동향	- 호주 음료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은 코카콜라 39.8%, 아사히 20.1%, 트르블루 5% 순			
	음료	HS Code	2202.1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206.7	대한수입액('17/US\$백만)	1.8

알루미늄 판	HS Code	7606.12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429.2	대한수입액('17/US\$백만)	97.2
	선정사유	- 호주의 알루미늄 판 수입은 지난 3년간 지속 증가, 2016년 대비 39.2% 증가 -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전체의 22.7% 정도로 2016년 대비 454%가량 큰 폭으로 증가		
	시장동향	- 알루미늄 플레이트 시장은 전통적으로 저가의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품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며 한국, 인도네시아 등 대체 공급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 호주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수요 산업인 건설, 식품 가공업, 인프라 산업의 향방에 큰 영향을 받을 전망		
	경쟁동향	- 호주 동 시장 관련업체 중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는 젤드웬으로 전체 시장의 7.5% 차지, 지 제임스 사가 그 뒤를 이음		
	진출방안	- 호주 식품 제조 및 패키징 산업의 알루미늄 플레이트 수요는 지난 2년간 큰 폭으로 상승해 수입 확대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동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유망		
의약품	HS Code	3004.9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4,336.9	대한수입액('17/US\$백만)	2.1
	선정사유	- 2017년 의약품 수입은 소폭 감소. 하지만 2018년 상반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3%가량 증가 - 2017년 대한민국 수입이 소폭 감소했으나, 2018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142.2% 증가		
	시장동향	- 2017년 호주 의약품 시장규모는 119억 호주달러로 2016년 대비 1%가량 증가 - 호주의 주요 의약품별 매출비중은 의약품 혜택제도에 해당되는 5,270여 가지 특정약품 49%, 비타민 및 건강보조식품 14.5%,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OTC 의약품 13%, 미네랄, 허브 등 각종 대체의약품 3%, 이외 기타 의약품이 20.5% 차지		
	경쟁동향	- 호주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지에스케이 15.3%, 아스트라젠카 13%, 아스펜 7% 순		
	진출방안	- 호주의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 수 역시 지속 증가. 특히 암, HIV/AIDS, 알츠하이머 등 노령인구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과 관련된 고가의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 이 때문에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개발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주방가전	HS Code	8418.1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427.3	대한수입액('17/US\$백만)	59.1
	선정사유	- 호주의 주방가전(냉장고, 냉동고) 수입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특히 2017년 대한민국 수입규모는 태국, 중국 다음으로 많음		
	시장동향	- 호주 주방시장은 전반적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한국산 제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 -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가전제품이 소비자의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1%의 성장 예상		
	경쟁동향	- 호주 주방가전 시장은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며 브랜드 인지도가 판매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직접 마케팅과 광고에 투자함 - Electrolux(스웨덴), Fisher&Paykel(뉴질랜드), Samsung(한국), LG(한국)와 같은 4대 글로벌 기업이 동 시장의 절반 이상인 53.5%를 점유		
	진출방안	- 가성비 좋은 브랜드를 선호하는 추세로 국내업체에서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선행되어야 함 - 호주 표준협회인 Standards Australia로부터 각 품목별 인증을 확인하여 기준에 맞는 테스트 결과 제출 필요		

화장품	HS Code	3304.99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887	대한수입액('17/US\$백만)	72.7
	선정사유	- 최근 20대 호주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상승하는 것을 매체를 통해 확인, 현지 대형 백화점과 같은 리테일러에서도 K-뷰티에 주목		
	시장동향	- 호주의 화장품 시장은 미국보다 화장품의 소비자가격이 평균 1.5~2배 정도 높은 편에 속하며, 미국시장과 동등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Sephora의 호주 진출로 가격경쟁 치열		
	경쟁동향	- 호주의 기초화장품 시장은 L'Oréal이 시장의 11% 이상을 차지하며 주도함. 뒤를 이어 Estée Lauder가 7%로 2위를 차지함. 이외에 프리미엄 유기농 화장품으로 성공을 거둔 Jurlique가 4.5%의 점유율을 확보		
	진출방안	- 차별화된 품질과 브랜드로 바이어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며, 영문 카탈로그 및 웹사이트 등 호주 시장에 맞춰 제품을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필요		
김	HS Code	1212.21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26.05	대한수입액('17/US\$백만)	5.2
	선정사유	- 호주의 대한민국 수입액은 2017년 522만 달러로 최근 3년간 지속 상승. 호주에서 한국산 김이 품질과 가격 면에서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한국에서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시장동향	- 호주는 김 생산량이 적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스시용 김의 경우 현지 식당에서 식자재로 꾸준히 수요가 있으며 특히 호주에서 스시 전문점 및 편의점용 스시롤을 기계로 대량 생산하고 있어 잘 찢어지지 않는 김을 선호 - 한국 및 아시아 식품점에서는 한국기업의 김밥용 김, 김스낵, 김자반 등이 주로 판매되고 있으나 스시용 김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임		
	경쟁동향	- 중국산이 시장을 점유한 상태로 중국에서의 수입량이 1,788만 달러로 전체 수입국 중 68%를 차지하며, 그 뒤로 한국(20%), 일본(7%) 순으로 높음 - 한국 브랜드와 호주, 뉴질랜드 기업이 자체 브랜드로 한국에서 생산한 김스낵이 메인 시장에서 경쟁		
	진출방안	- 주 시장에 한국의 김 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어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므로 이미 현지시장에 있는 제품과 차별화를 위해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다양한 맛 개발 필요		
소스	HS Code	2103.9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288.7	대한수입액('17/US\$백만)	5.1
	선정사유	- 호주에서 아시아 식품이 건강식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식 소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김치, 불고기, 갈비, 비빔밥이 가장 많이 알려짐		
	시장동향	- 최근 호주 최대규모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Woolworths에 오투기 사의 불고기소스, 갈비소스, 고추장 입점 - 현지 소비자들의 아시아인 소스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피쉬소스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굴소스와 간장도 인기임		
	경쟁동향	- 호주의 전체 수입액은 태국,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수입량이 많으며, 10위권 내의 수입국 중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전년 대비 수입액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한국은 13위 차지		
	진출방안	- 호주에 진출한 아시아인 소스 브랜드의 인기비결은 전통적인 맛을 살리면서도 천연재료 사용, 무방부제, 글루텐 프리 등 건강함을 어필한 것이며, 현지화된 영문 패키징이 중요		

미용기기	HS Code	9018.9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1,290.3	대한수입액('17/US\$백만)	8.4
	선정사유	- 비만율과 중장년층 비율이 늘어나면서 해당 산업 성장을 이끌고 있고,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외모에 투자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미용기기 수요도 높아짐		
	시장동향	- 호주 미용기기는 주로 전문 수입, 유통업체를 통해 병원, 피부과, 성형외과, 피부관리실 등으로 공급 - 레이저 제모, 피부재생, 박피 등이 있으며 전체 시장에서 23.1%로 비용 부담이 적고 장기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술에 대한 인기가 더 상승하는 추세		
	경쟁동향	- 호주의 미용기기 시장은 미국, 유럽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지만 현지 시장에서 K-뷰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산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		
	진출방안	- 호주 식약청에 해당하는 TGA 인증이 필요하며 현지에 에이전시를 두고 체계적인 A/S 제공이 필요		

 교육	선정사유	- 호주는 2014년 9월 장기적인 경제 불황 타개 및 국가경쟁력 재고를 위한 국가 혁신성장정책 전략으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교육을 도입, IT 선진국 및 교육산업 수출국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음 - 호주의 교육산업은 주요 수출품목인 농업, 광물, 헬스케어와 함께 4대 수출주력품목으로 성장했으며, STEM 교육은 기존 바이오, ICT, 고급 제조(Advanced manufacturing)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는 물론,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시장동향	- 호주 교육 및 트레이닝 시장은 1,220억 호주달러 규모로 지난 5년간 3.6%의 성장을 기록, 향후 5년 동안 현재와 유사한 3.7%대의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호주달러의 연이은 하락으로 호주 유입 유학생 증가, 가장 많은 교육활동을 하는 5~18세 인구 증가 추세
	경쟁동향	- 호주 내 주요 교육기관으로는 VIC주 교육 및 트레이닝부가 11%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점유율 보유, 그 뒤로 NSW주 교육부 10.5%, QLD 교육 및 트레이닝 부 7.9%, 멜버른 대학교 1.9% 순
	진출방안	- 국내기업 관련 제품이 호주 교육시장에 진출하고 유력 바이어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호주 정부의 STEM 교육과정을 기초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영문으로 된 교육자료(Material)가 제공되어야 함
 SW/클라우드	선정사유	-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의 발전과 함께 호주 클라우드 시장 역시 가속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및 정부 관련기관 고객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시장동향	- 호주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회계연도 2017~2018 기준 25억 호주달러 규모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2.4%가량 성장했으며, 앞으로 5년 동안 10.7%대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호주 내 83%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은 경제활동의 중심지이자 인구밀도가 높은 NSW주, VIC주, QLD주에 집중
	경쟁동향	- 호주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글로벌 기업으로 주요 플레이어로 에퀴닉스 10.8%, 아이비엠 9.2%, 글로벌 스위치 7.3%, 캔버라 데이터 센터 및 후지쯔 호주가 각각 해당 시장의 5%가량씩을 차지
	진출방안	- 빠르게 변화하는 데이터 기술의 특성에 맞춰 신기술에 대응 가능한 기업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음. 이러한 특징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할 때 유리하게 작용 - 호주 NBN 사업의 영향으로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됐는데, 이러한 속도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기술 개발 역시 중요한 요소
 보건·의료	선정사유	-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 및 기타 질병 치료에 대한 수요 증가 - 호주 정부, 2017~2018년 예산안을 통해 보건 및 노인 관련 의료서비스 강화 발표(요양시설에 있는 호주 노인들의 우울증 치료를 돕기 위해 8,300만 호주달러 투입 예정)
	시장동향	- 호주 보건·의료시장은 137억 호주달러 규모로 지난 5년간 4.6%의 성장을 기록, 향후 5년 동안 현재와 유사한 4.3%대의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호주 의료서비스 매출 가운데 공공병원이 39.8%로 가장 높으며, 기타 의료서비스 17.8%, 개인병원 11.9%, 전문의료 서비스 9.1% 순

	경쟁동향	- 호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관은 호주 보건부로 16.3%이며, VIC주 보건복지부 11.7%, QLD 보건부 9.3%, WA 보건부 8.5%, 렘지 헬스케어 3.3%, 소닉 헬스케어 1.6% 순
	진출방안	- 호주로 의료설비 및 의약품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식약처 인증인 TGA 취득이 필요. 인증 취득을 위해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현지 에이전트 발굴이 필요. 만약 직접 진출을 희망할 경우 호주에 지사를 먼저 설립하고 에이전트 대신 호주 현지 지사에서 인증 취득절차 진행 가능 - 매 회계연도마다 변경되는 호주 사회보장제도 및 정부지원금에 대한 정보 획득을 통해 신규 규제 및 제제에 대한 인지 필요
 금융/핀테크	선정사유	- 최근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핀테크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상호 성장잠재력을 증대할 수 있는 대안 산업으로 관심 - 호주는 대출, 소비자 금융,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 주요 핀테크 산업 영역에서 다양한 기회요소 제공 시장
	시장동향	- 호주는 세계 핀테크 시장에서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로 거론 - 호주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증
	경쟁동향	- 페이스북, 구글페이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이 아직 높지 않아 성장 잠재력 높은 편임 - 호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현지 핀테크 스타트업 늘어날 전망이며 비트코인 ATM도 현재 20대에서 500대로 증가할 예정 - 한편, 호주 핀테크 시장의 13.5%는 해외 진출 기업으로 이 중 절반이 미국 기업이며, 영국, 독일,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출신의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음
	진출방안	- 호주 정부, 핀테크협회, 핀테크 스타트업, 금융기관, ICT 기업, 벤처캐피탈과의 교류를 통해 양국의 핀테크 시장 및 환경을 파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호주 주요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에 크게 집중하고 있지 않아 중소기업 대출 시장이 핀테크 기업에 기회
 전력/에너지	선정사유	- 호주 정부는 현재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대량의 전력 공급을 하지 못하고 기상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해 에너지 스토리지 분야에 큰 투자 - 호주 가정에서도 확실한 전력 확보와 전기세 절약을 위한 해결책으로 태양광 패널과 더불어 솔라 배터리 설치 증가
	시장동향	- 호주 전력의 17%가 신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되고 있어 2020년 목표인 20%를 미리 달성할 것으로 전망 - 호주 정부는 2억 2,200만 호주달러 이상을 에너지 스토리지 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미래 에너지를 책임질 테크놀로지 솔루션으로 확신 - 글로벌 기업 Tesla의 세계에서 가장 크고 파워풀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남 호주 제임스타운에서 12월 1일부터 가동돼 100MW 배터리를 통해 약 1시간 동안 3만 가구에 공급 가능한 전력을 저장
	경쟁동향	- 현지 시장에 20개의 제조사에서 만든 90여개의 배터리 제품이 판매 중이며, 미국 Tesla, 한국 LG Chem, 독일 Sonnen, 호주 RedFlow 등이 대표적 - Tesla는 에너지 시장 확장에 발맞추어 2016년 가정·사업장용 배터리 시스템 Powerwall을 출시한 후 지속 업그레이드 버전 판매 중
	진출방안	- 현지 시장에 중국산이 많이 유통되고 있지만 안전성 문제로 미국, 유럽 브랜드의 인기가 상승 중이며 LG Chem의 인지도가 높은 편 - 호주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적 발전해 있으며, 특히 에너지 관리 관련 규정 및 법률이 상당히 세분화 -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은 인증에 대한 사전준비를 통해 효과적인 시장 진입을 모색

 온라인 쇼핑	선정사유	호주는 면적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은 외진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상당한 이점이 있고, 호주는 인건비와 물가수준이 매우 높은 편으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함
	시장동향	- 호주 온라인 쇼핑 시장규모는 2015~2020년 5년간 연간 9.3%의 비율로 성장해 210억 8,000만 호주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의류, 신발, 액세서리류에 대한 소비가 20.6%로 호주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함
	경쟁동향	- 호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eBay가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Gumtree, Amazon, Kogan 순으로 높음 - 호주 전체 슈퍼마켓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대형 유통체인인 Coles와 Woolworths의 온라인 쇼핑 이용자 수가 점점 증가
	진출방안	- eBay와 같은 글로벌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하는 것이 가능 - 특히 의류, 신발, 액세서리, 건강 및 미용용품, 소형 가전제품 등은 온라인 쇼핑의 핵심 아이템으로 온라인 시장 공략 기회

□ 대형유통망 진출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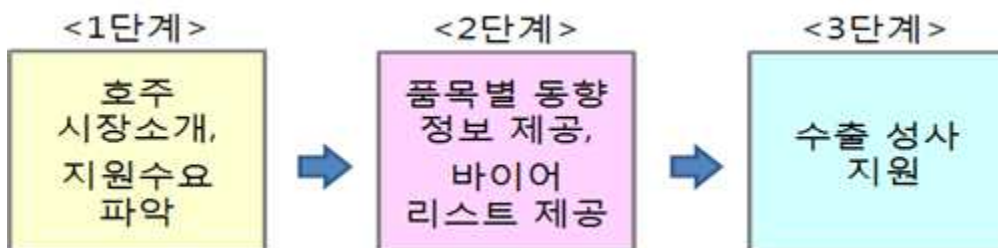
- 호주 유통체인 입점 지원
 - 타깃 유통망 및 벤더
 - 내용 : 3개 집중지원 분야(생활소비재 및 식품, 패션/뷰티, 생활가전) 대상 호주 대형유통망 및 벤더를 접촉, 인콰이어리 발굴

분야	벤더/유통사명
생활소비재 및 식품	Rockman(Coles, Woolworth 납품), Medcash(1,400여개 매장 보유), Hong Australia(2,500여개 유통망 보유), Vonessaus(ALDI 벤더) 등
패션/뷰티	Mysale Group(글로벌 온라인 리테일러), Cosmax(Myer, DJ, Priceline 납품), Sephora(글로벌 대형 리테일러) 등
생활가전	Unclebills(Kmart, BigW 등 납품), Kogan(호주 최대 가전제품 온라인), UCC(Coles, Aldi 납품, 가전제품) 등

- 대양주 온라인 유통망 입점지원
 - 대상 온라인 플랫폼 : eBay, Amazon, Alibaba, ry.com.au, trademe 등
 - 내용 : 호주뉴질랜드 간 통합 운영되는 마켓플레이스에 우리 중소기업 제품 입점을 지원(입점 정보 지원, 바이어 샘플 전달, 바이어 대상 국내 3PL 기업 매칭, 입점 지원, 온라인 홍보 등)

□ 수출 초보기업 수출 지원사업

- 초보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 상시 운영 :
 - 호주 진출경험이 없는 기업 중 유망기업을 선정, 무역관 지원 수요 파악



- 지방 무역사절단 상담회 개최(연중, 총 5~6회)
 - 호주 수출경험이 부족한 기업 위주의 사절단을 구성, 수출 집중 지원
- 기간제 맞춤형 사업 추진 : 지사화 및 월드챔프, 공동물류 기업 80여개사

□ 방산 분야 수주 지원사업

- 호주 내 방산 발주정보 우리 기업 전파
 - 개요 : 정보 발굴+벤더 등록 지원+정보 전파 및 매칭
 - 정보 발굴 : Austender, Australia Defence Gateway, 전문전시회 등
- 호주-우리 기업 간 프로젝트 맞춤형 지원
 - 개요 : 지사화 사업(1년)을 통한 유망 프로젝트 장기 맞춤형 지원

□ 시장 정보조사 / 호주 기업의 對한 투자유치 지원

- 사업 파트너 연결조사 100여건
- 해외시장 정보 100여건 전파(현안조사, 시장동향조사, 수출직결 마케팅 정보 조사 등)
- 투자유치 목표 1억 3,000만 달러

[주요 호주 투자 프로젝트]

호주 투자가명	프로젝트 내용
M사	한국 내 보안서비스 업체 인수
S사	레저시설(통영, 부산) 설치 및 운영
R사	국내 의료기기 업체 M&A 인수
P사	한국내 호주産 의약품/영양제 판매법인 설립
Q사	국내 의료기기 유통업체 인수
C사	국내 폐차처리 가공시설 공장 설립

□ 한국 청년의 호주 취업 지원

- 2019년 대양주 취업박람회(JOB FAIR)/취업전략간담회 개최
- 상/하반기 글로벌 취업상담회 구인처 유치
- 전문 분야 취업 세미나 개최
 - KOTRA-시드니 주요 대학 취업세미나 개최
 - 호주 IT 취업설명회 개최 등
- 구인처/구직자 실수요에 기반한 취업 노하우 공유 등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NSW주 주정부선거	2019년 3월 23일	-
호주연방 상원 및 하원의원 선거	2019년 5월 18일	-
WA주 주정부 선거	2019년 10월 19일	-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19년도 금리 결정	2019년 2월 첫째 주	매년 2월 첫째 주 호주 캔버라 위치 호주 중앙은행서 결정
2018/19년도 예산안 발표	2019년 5월	회계연도: 7월 1일 ~ 6월30일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유아, 아동, 임산부 용품 박람회	2019년 2월 23~27일	시드니
선물용품 박람회	2019년 2월 23~29일	시드니
호주 뷰티 엑스포	2019년 3월 23~24일	멜버른
호주 프랜차이즈&비즈니스 박람회	2019년 3월 23~24일	시드니
호주 포장 및 프로세스 박람회	2019년 3월 26~29일	멜버른
시드니 홈쇼	2019년 4월 5~7일	시드니
호주 자동차 애프터마켓 엑스포	2019년 4월 4~6일	멜버른
세계 비즈니스 포럼	2019년 5월 29~29일	시드니
에듀 테크 엑스포	2019년 6월 6~7일	시드니
호주 헤어 엑스포	2019년 6월 8~10일	시드니
음식 서비스 박람회	2019년 6월 23~25일	멜버른
온라인 리테일러 컨퍼런스 및 이커머스 엑스포	2019년 6월 24~25일	시드니
호주 게임 엑스포	2019년 8월 13~15일	시드니
호주 식품 박람회	2019년 9월 날짜 미정	시드니
해양 및 해군 기술 엑스포	2019년 10월 8~10일	시드니

담당자

시드니 무역관 김보혜
Tel +61 2 8233 4011

직책 과장
Email alice@kotra.or.kr

멜버른 무역관 황성운
Tel +61 3 9860 0502

직책 과장
Email beglobal@kotra.or.kr

2019 국별 진출전략

호주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